

정조의 경학 방법에 대한 고찰

－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의미 규명을 중심으로

이시연 *

-
1. 서론
 2.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眞意
 - 1) 『근사록』 인용을 통한 정조의 주자학 존숭
 - 2) 장식의 호상학 계승과 그 특징
 - 3) 『속대학혹문』에 나타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정신
 3. 결론
-

■ 국문요약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正祖)는 18세기 말의 새로운 사상적 유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자를 배우는 요령으로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태도를 제시하였다. 정조가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존숭한 것인지, 일정 부분 다른 설을 제기하였는지, 혹은 그 외의 어떤 지점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여전히 분분하다. 이에 정조가 말하고자 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가 가지는 본의를 추적하여 주자학에 대해 정조가 가지는 구체적인 입장과 학술태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정조가 『홍재전서』 내에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를 언급한 것은 두 차례로 첫 번째는 「책문_대학」을 통해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으로 장식이 호안국에게 유착하듯이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할 것’을 강조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회재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에 서문을 내리면서 ‘주자를 잘 배워 無疑而有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 E-mail: ttyuuui12@naver.com

疑 有疑而無疑 하였다'고 회재의 업적을 칭찬'한 부분이다. 고찰한 바에 따르면 정조는 의문을 가지는 자세를 중시하되, 의문의 끝에는 반드시 의문이 해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책문_대학」이나 「경사강의」에서 발견되는 정조의 질문은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정조가 말하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정신은 주자에게서 이어받은 학문 태도로, 처음에는 의문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고 의문을 끝까지 궁구해 가며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문이 해소됨을 말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주자학을 벗어나는 새로운 의견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가사상의 전제 안에서 그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조 또한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하는 태도를 지니지만 스스로는 새로운 설을 제시하지 않는데, 이는 주자를 온전히 이해하였다는 자신감과 주자설의 완벽성에 대한 확신의 교집합일 수도 있고, 왕이라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제어 : 정조, 주자학, 장식, 호상학파, 근사록, 이언적, 속대학혹문, 대학장구보유,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1. 서론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재위1776-1800년)는 주자학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 18세기 당시는 이미 주자학이 조선 사회의 통치 철학으로 공고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학, 양명학, 고종학 등의 새로운 사상적 유입이 시작되고 있던 때기도 하다. 이에 정조는 주자를 배우는 요령으로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¹⁾의 태도를 제시하

1) 현재(2022.1.) 고전번역원DB의 번역에 따르면 정조가 주자를 존송하는 요령으로 언급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는 '의심이 없는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의심이 있는

여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문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홍재전서』에서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언급을 두 차례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정조는 「책문_대학」을 통해서 ‘주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예로 장식이 호안국에게 유착하듯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²⁾ 또 다른 한 번은 정조가 회재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에 내린 서문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이하 「속대학혹문서」)에서 보인다. 여기서 정조는 회재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하는 학문 자세를 갖추었다며 주자를 잘 배웠다고 극찬한다.³⁾

그런데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서로 간의 상반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장식과 호안국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장식은 호상학을 그 대로 수용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갔다고 알려진 인물이다.⁴⁾ 따라서 여기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다’ 혹은, ‘의심할 것이 없는데도 의심을 갖고, 의심을 해야 하는데도 의심을 갖지 않는 것’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번역을 그대로 이해하면 주자의 설에 굳이 억지로 의심을 가지고 비판해야 한다는 뜻과 의심이 있더라도 묵수 주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충되는 의미가 공존하여 혼란을 초래한다.

- 2) 正祖, 『弘齋全書』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 3) 正祖, 『弘齋全書』卷55,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 4) 장식 및 호상학과 관련된 한국논문으로는 연재희의 「張栻의 心論 研究: 호상학과 주자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67집, 2013년; 소현성의 「張栻哲學思想研究」, 北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년과 「張栻의 中和說」, 『동양철학』 제22집, 2004년; 이연정의 「南軒 張栻의 수양론 연구 -호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철학논집』 제58집; 「장식 ‘仁’에 대한 小考」, 『한국 철학논집』 제55집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장식이 주자에게 미친 영향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한편 장식과 관련한 중국 논문은 다음과 같다. 戴景賢, 「論南宋湖湘學脈之形成與其發展」, 『中國文化』第四十, 八期, 2018; 蘇炫盛, 「張南軒의 性論」, 『蜀學』第十一輯, 2016; 鐘雅琮, 「張栻對胡宏思想的傳承及調整」, 『孔子研究』, 2014; 任仁仁, 「張栻生平及其往來書信論析」,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8; 楊世文, 「張栻의 治國理政思想及現實意義 - 以『論語解』爲中心的考察」, 『蜀學』第十一輯, 2016; 王麗梅, 「張栻哲學思想研究」, 『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2001; 王鳳賢, 「胡宏、張栻의 “性本論”倫理思想」, 『浙江學刊』, 2017; 姜海軍, 「胡宏의 經學詮釋及其思想探析」, 『儒家典籍與思想研究』第八輯, 北京大學出版社, 2016. 중국 논문의 경우

에 정조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의미를 투사한 것은 전통 계승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생겨났다. 이언적은 『대학장구보유』를 지어 주자의 『대학장구』 편차인 경1장 전10장 체제를 경1장 전9장 체제로 개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언적은 청송장을 경1장 뒤에 붙이는 등 주자와는 다른 과감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⁵⁾ 따라서 「속대학혹문서」에서 정조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태도를 칭찬한 지점은 기존 논지에 대한 비판 정신과 새로운 학문 체제 개설의 창달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견 정조는 서로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 동일하게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태도라 평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정조는 서로 다른 두 사례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포착하여 동일한 평가를 내린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밝힌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정조가 전하고자 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자학에 대한 정조의 학문 태도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중요

는 장식 및 호상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장식이 호상학을 계승한 데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고, 장식과 호평의 변별적 특징을 위주로 서술한 경우는 드물었다.

- 5)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 및 『속대학혹문』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김진성, 「晦齋 『大學章句補遺』의 思想的 特徵」, 『孔子學』 제20집, 한국공자학회, 2011; 이지경, 「晦齋 李彦迪의 「大學章句補遺」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16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이지경, 「朱子の 『大學章句』 編次 해석에 관한 이언적의 비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2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이동희, 「李彦迪의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4집, 한국유교학회, 2008; 조창열, 「주자, 회재(朱子, 晦齋)의 『대학』 주석 비교 연구」, 『漢文古典研究』 제11집,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2005; 강보승,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 편차 개정과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찬반론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5집, 한국유교학회, 2019; 서근식, 「晦齋 李彦迪의 [大學] 해석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研究』 제34집, 동양고전학회, 2009 등이 있으며, 주로 회재의 시각이 주자와 얼마나 달랐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어 왔다. 한형조는 정조가 주자학을 因循하는데 만족하지 않은 비판적 회의주의자라고 평가하였다.⁶⁾ 즉, 정조는 주자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회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백민정은 정조가 주자의 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주자의 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 또 백민정은 정조 및 모든 당파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자학이 객관적인 평가대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성인의 위상과 경전의 실제적 의미, 주자학적 해석 방식의 한계와 모순점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⁸⁾ 박경남은 정조가 『경사강의』에서 『대학』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선현을 존경하면서도 스스로의 의문과 깨달음 속에서 주자와 다른 창조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오히려 참된 공부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주자에 대한 정조의 懷疑정신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⁹⁾

한편, 보다 최신 논문에서는 정조가 주자를 추존하는 입장이었다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권오영은 정조가 주자를 성인으로 여겼으며, 정조 자신이 공자 이후 주희로 이어지는 도통을 잇고 있다고 자임하였다 말하였다.¹⁰⁾ 강문식은 정조가 『주서백선』을 편찬할 때 주자가 불교와 양명학을 비판한 편지들을 다수 수록한 것에 주목하여 이를

6) 한형조, 「정조의 학문관: 주자학의 비판적 복고」, 『장서각』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7) 백민정, 「정조와 다산의 『대학』에 관한 철학적 입장 비교: 『경사강의, 대학』 『증전추록』 및 『회정당대학강의』 『대학공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26집, 퇴계학연구원, 2009.

8) 백민정, 「경사강의를 통해 본 정조시대 학문적 논쟁의 양상 사서에 관한 정조와 학인들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767면.

9) 박경남, 「한국문집과 한학연구: 한중 문화의 교차적 이해(1): 청과 조선의 어제집 편찬과 성조, 정조의 『대학』 논의」, 『민족문화연구』 제6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53면.

10) 권오영, 「正祖의 朱子學과 정치이념」, 『진단학보』 제135집, 진단학회 2020.

‘正學守護’의 관점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렇듯 정조가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존송한 것인지, 일정 부분 다른 설을 제기하였는지, 혹은 주자학과는 또 다른 어떤 지점에서 있었던 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즉, 주자학에 대해 정조가 취한 구체적인 학문 태도와 입장을 정의할 만한 일치된 견해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본의에 접근하여, 앞서 밝힌 문제의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근사록』에 기록된 주자의 언급을 살펴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전거를 밝힐 것이다. 둘째, 호상학과 발전과정 및 학문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장식-호상학과의 비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조가 회재에게 주자를 잘 배웠다고 한 진의를 『대학장구보유』와 『속대학혹문』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2.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眞意

1) 『근사록』 인용을 통한 정조의 주자 존송

『근사록』은 중국 송나라 때, 주자와 그의 제자인 여조겸이 함께 편찬한 책이다. 주자와 여조겸은 주무숙,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 등의 저서나 어록에서 일상 수양에 필요한 장구 622조목을 뽑았다. 그리고 이를 道體, 爲學, 致知, 存養, 治法, 克己, 家道, 出處, 政事, 教學, 警戒, 弁異端, 觀聖賢의 14편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세 번째 편에 해당하는 치지

11) 강문식,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한국문화』 제8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62면.

는 『대학』의 팔조목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은 사서 체계를 확립시킨 주자가 일생의 정력을 바쳐 개정을 거듭한 텍스트로, 사서 중에서도 주자학의 대지를 볼 수 있는 間架이다. 특히 주자는 『대학』을 경1장과 전10장으로 나눈 뒤 전5장에 해당하는 「격물치지장」이 일실되었다고 생각하여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어 붙임으로써 후대에 많은 논란을 초래하였다.¹²⁾ 주희는 『근사록』에 致知편을 두고 치지란 무엇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책을 보는 까닭은 자신의 의심을 풀고 자신이 통달하지 못한 것을 밝히려 해서이다. 책을 볼 적마다 언제나 새로 유익한 것을 안다면 학문이 진전될 것이요, 의심하지 않던 곳에 의심이 생겨야 비로소 진전될 것이다.

책을 볼 적마다 언제나 새로 유익한 것을 안다면 학문이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학문은 진실로 의심을 푸는 것이요, 학문은 또한 의심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의심하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면 터득할 수 있다. 의심하지 않던 부분에 의심이 생긴다면 이치를 살피어 치밀한 것이다.¹³⁾

주자는 『근사록』에서 책을 읽는 이유와 요령을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즉 독서의 이유는 자신이 통달하지 못한 것을 밝혀서, 새로 유익한 것을 아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는 먼저 의심하지 않던 곳, 즉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거나 지각하지 못한 지점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 보았다. 사실 『대학장구』 개정이야말로 그러한 주자의 견해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¹⁴⁾ 주자가 『고본대학』의 체

12) 주희 지음, 최석기 옮김, 『대학』, 한길사, 30면.

13) 朱熹, 『近思錄』卷3. “所以觀書者, 釋己之疑, 明己之未達. 每見, 每知新益, 則學進矣. 於不疑處, 有疑, 方是進矣. 每見是書, 而每知新益, 則學進矣. 然學固足以釋疑, 而學亦貴於有疑, 蓋疑則能思, 思則能得. 於無疑而有疑, 則察理密矣.”

제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평생의 정력을 다한 것은 바로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다시 그 의문의 끝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다르다.

『근사록』의 또 다른 예를 보자.

이천 선생이 말씀하였다.

“배우는 자는 먼저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주자가 말씀하였다.

“책을 처음 읽을 적에는 의심할 줄 모르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의심이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구절 구절이 의심이 있게 되니, 이렇게 한 차례를 지난 뒤에는 의심이 점차 풀려서 융회하고 관통하는 데에 이르러 의심할 만한 것이 모두 없어야 비로소 學이라 할 수 있다.”¹⁴⁾

위 내용에서 주자는 정이천의 말을 빌려, 의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자에 따르면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의심이 없더라도 만일 계속해서 속독하면 의심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구절구절 의심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의심은 의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의심의 의심을 거듭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의심이 점차 풀려나가고 전체 내용과 조목이 잘 이해되고 명료해져서, 의심이 없어지는 단계에까지 이르는데, 주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학문 과정이라 보았다.

조선에서는 퇴계와 율곡 이후 주자학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주자학은 조선 전반을 아우르는 학문체계이자 통치 질서였다. 조선의 대다수 학자들은 주자 존숭을 당연시하였다. 정조 또한 그의 문집 『홍재전서』 전반

14) 김유곤, 「한국 유학의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1) - 『대학장구』와 『고본대학』의 체제를 개정한 학자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43집, 한국유교학회, 2011.

15) 朱熹, 『近思錄』卷3. “學者先要會疑, 朱子曰, 書始讀, 未知有疑, 其次漸有疑, 又其次節節有疑, 過了此一番後, 疑漸漸釋, 以至融會貫通, 都無可疑, 方始是學.”

에서 주자를 존숭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성명의 정치를 만들어 내려면 詩敎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고, 시교의 근본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주자의 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것이 『아송』을 편집하게 된 까닭이다. 그러나 부자의 시는 풍부하고 세련되어 가릴 수가 없다. 내가 春邸에 있을 적부터 존숭하고 암송하여 매번 全部를 『詩經』 삼백 편의 체제를 모방하여 정리하려고 하였다.¹⁶⁾

편전에서 만나 보고 그의 학식을 시험해 본 뒤에 內藏한 주자서를 사하여 주자를 존숭하고 正道를 보위하는 뜻을 면려하였다.¹⁷⁾

정조가 평소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이자 주자를 잘 배운 자세로 강조한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의 태도는 정조의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이 존숭했던 주자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고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⁸⁾

정조는 앎을 지극히 한다는 것[致知]은 단순히 암기를 잘하거나, 주자의 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주자의 글을 의문이 생길 만큼 속독하고 읽다 보면 분명 의문에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자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져 더 이상의 의문이 사라지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16) 正祖, 『弘齋全書』卷56, 「雜著3」 「分命諸臣書朱夫子詩 漫書卷端」, “欲做聲明之治, 莫先於詩敎, 欲求詩敎之本, 宜自朱子詩始, 雅誦之所以編也. 然夫子之詩, 棧棧不可選也. 予自春邸, 尊閣諷誦, 每欲會通全部, 以做三百篇之體.”

17) 正祖, 『弘齋全書』卷184, 「羣書標記」6, 「命撰2」 「關西賓興錄三卷」, “臨見于便殿, 叩其所存, 賜以內藏朱子書, 勗之以尊朱衛正之意.”

18) 더 나아가서 조선유학의 변천과 변용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주자학 내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것이 주자의 설과 다르더라도 참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지은의 「새로 쓰는 17세기 조선유학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주자 존승법을 강조한 정조는 스스로 이를 실천하여 『대학장구』의 곳곳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책문_대학」이다.

‘책문’이란 문과 試問의 한 종류로, 임금이 직접 경서의 뜻이나 時政 등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여 과거에 응시한 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다. 정조 15년(1791, 건륭) 8월 11일 치러진 ‘到記儒生の 秋試 및 抄啓文臣의 親試와 文臣의 製述’에 해당하는 공통 시험 문제는 『대학』에 관한 것이었다.¹⁹⁾ 「책문_대학」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자. 먼저 정조는 『대학』을 학문하는 지침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헌장이라고 공포한 뒤, ‘이제 모두 다 해석하지 않겠다’는 주자의 말을 들어, 주자가 다 해석하지 않고 남겨 둔, 나머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약 27여 가지의 질문을 제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지침이요, 천하를 다스리는 헌장이다. 규모의 광대함과 절목의 상세함에 대해서는 주자가 ‘지금 모두 해석하지는 않는다.[今不盡釋]’라고 하였다. 미진한 의미를 낱낱이 논할 수 있겠는가? 20)

신민에서 ‘친(親)’ 자를 ‘신(新)’ 자로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견해가 분분하다. 고본을 따른다면 뜻이 심하게 어긋나는가? 21)

팔조목의 공부는 ‘어떠한 것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그것을 하려면 또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문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치지와 격물만은 유독 변경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2)

19)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와 尹椿의 『無名子集文稿冊九』, 「殿策_大學」의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1791년 辛亥八月到記科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大學一書, 爲學之指南, 而君天下之憲章也. 其規模之大, 節目之詳, 可以歷論於今不盡釋之餘歟?”

21)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新民之改親爲新, 歧議紛然. 仍舊則有甚抵牾歟?”

22)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八

격물과 치지의 의미를 보충한 보망장은 정자의 생각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知止’와 ‘聽訟’ 구절을 가지고 격물과 치지에 해당하는 전문의 착간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평생의 정력을 『대학』에 쏟은 주자로서도 오히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인가?²³⁾

격물·치지를 夢覺關이라 하고, 성의를 人鬼關이라고 하였다. 무엇에서 취하여 비유한 것인가?²⁴⁾

격물’을 ‘외물을 막는다[捍禦外物]’라고 해석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²⁵⁾

정조의 위와 같은 질문은 평소 주희의 『대학장구』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에서는 주자학의 위상이 상당하였고 정조 또한 주자학을 바탕으로 학문하였으나, 그의 질문은 주자설 자체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다가서고 있다. 특히 주희의 『대학장구』 개정 이래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친민-신민 문제, 치지와 격물의 변격 문제, 이언적이 제시한 -주희와는 다른 새로운-편차 해석, 그리고 격물의 문제 등이 가감 없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칫 정조가 주자를 신랄히 비판하고 새로운 설을 내어놓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정조의 언급은 위와 같은 질문 의도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정신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어찌하여 세상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도가 밝아지지 않아서 다 스리는 규모는 刑名으로 돌아가고 학술은 입과 귀로 답습하여 眞西山

條工夫, 先而又先. 而致知格物, 獨爲變例, 何歟?”

23)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格致補傳, 意取程子. 而或以知止聽訟, 爲格致之錯簡. 則平生精力, 猶有所未盡歟?”

24)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格致之夢覺關, 誠意之人鬼關. 何所取喻?”

25)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扞禦外物之解, 創自何人?”

과 丘瓊山의 『大學衍義』와 『補篇』 등의 책을 때때로 오할하고 事務에 절실하지 못하다고 하며, 경연에서 질문하는 것이나 강사가 전수하는 것이 명사의 뜻과 字句의 분석에 지나지 않고, 그중 심한 것은 정자와 주자를 한껏 배척하고 별도의 문호를 세워 誠意의 공을 으뜸이라고 하고, 修身을 본령으로 삼아 다른 길을 따라서 차츰차츰 陸象山과 王陽明의 논설로 들어가고 있으니, 세상 교육이 황폐해지고 올바른 학문이 가리어지는 것이 어떠하냐? 내가 세자로 있으면서부터 이 책을 탐독하여 낮 시간과 새벽녘에 깊이 탐구하고 연마한 것이 대체로 여러 해 되었다. 늘 이르기를, “경전을 존중하려면 먼저 주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은 또한 의심이 없는 데서도 의문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의문이 없어지게 되는 데에 있으니 張宣公이 胡文定에게 유착하듯이 한 연후에 참으로 주자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지금 나의 책문을 대하는 이는 모두 주자 문하로서 祭酒를 올리고 계보를 계승하는 선비이니, 經一章과 傳十章의 『章句』와 『或問』을 반드시 익숙하게 읽고 체험해 왔을 것이니, 내게 비밀로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모두 보여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²⁶⁾

정조는 경연에서의 질문 수준 및 강사가 전수하는 것이 명사의 뜻과 자구의 분석에 지나지 않음을 개탄하였다. 그는 정자와 주자를 배척하는 태도, 격물치지가 아닌 誠意의 공을 으뜸이라고 하는 태도, 수신을 본령으로 삼아 육상산과 왕양명을 닮아가는 태도에 대해 세상 교육이 황폐해지고 올바른 학문이 가리어지는 것이라 비판한다. 그리고 경전의 존중은

26) 正祖, 『弘齋全書』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奈之何世級漸降, 斯道不明, 治讓歸於刑名, 學術襲乎口耳, 西山瓊山衍義補輯等諸書, 往往以爲迂闊不切事務, 而經筵之所發難, 講師之所傳授, 不越乎名義字句之分析, 其甚焉者, 力排程朱, 別立門戶, 以誠意謂首功, 以修身爲本領, 異塗殊轍, 稍稍入於陸王之餘論, 其爲世教之榛蕪, 正學之蔽蔽, 顧如何哉? 惟予自在春邸, 潛心是篇, 晝漏晨鐘, 窮深研幾者, 蓋亦有年矣. 常謂欲尊經者, 當先知尊朱, 而尊朱之要, 又在於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不但如張宣公之留著胡文定, 然後儻庶幾乎真箇尊朱. 凡今對予之策者, 皆朱門瓊享譜承之士也, 其於經一傳十之章句或問, 必讀之熟而體之素, 願勿祕予, 悉以所存屬予. 予將親覽焉.”

주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정조는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으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를 제시한다.

이는 앞서 제시된 질문이 주자의 권위를 상실시키기 위해서라거나, 주자의 설에 진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정조는 의문을 가지는 자세를 중시하되, 의문의 끝에는 반드시 의문이 해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정조가 제시한 질문은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대학』에 대한 학설을 수험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주자의 해석이 어떠한 경학사적 맥락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마치 정조가 「책문_대학」을 통해 주자의 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는 듯 보이나, 궁극적으로 그는 주자의 설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²⁷⁾

이를 방증하듯 정조는 홍재전서에서 『대학』과 관련된 논의를 기록할 때 『대학장구』의 경1장과 전10장 체제를 철저히 따른다. 그리고 주자가 쓴 「대학서문」을 중시하여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한다. 정조는 오히려 주자의 설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와 회의 정신을 가지되²⁸⁾ 궁극적으로 논리적 보장을 바탕으로 주자의 학설이 옳다는 견해까지 이르는 것이 최종 귀결점이라고 본 것이다.

27) 尹愔의 『無名子集文稿冊九』, [殿策_大學]은 1792년(정조 16)에 식년문과에 병과 급제 답안이다. 이 답안은 정조가 제시한 질문에 대하여 주자의 설이 옳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조의 질문 의도가 주자학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에 대한 학자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학의 모순이라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조가 치밀한 보강작업을 하고자 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28) 이러한 ‘회의적 시각’ 혹은 ‘비판하였다.’는 관점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회의정신과 비판적 시각은 당시 주자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논리를 개진해 가는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였을 것이다.

2) 장식의 호상학 계승과 특징

한편 정조는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에 대한 실례로 장식과 호상학과 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조는 장선공(장식)이 호문정(호안국)에게 유착하듯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장식이 호상학과를 일으킨 데에 빗대어 그러한 방식이 참으로 주자를 존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내가 세자로 있으면서부터 이 책을 탐독하여 낮 시간과 새벽녘에 깊이 탐구하고 연마한 것이 대체로 여러 해 되었다. 늘 상 이르기를, “경전을 존중하려면 먼저 주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은 또한 의심이 없는 데서도 의문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의문이 없어지게 되는 데에 있으니 비단 張宣公이 胡文定에게 유착하듯이 한 연후에 참으로 주자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²⁹⁾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장식이 호안국에게 유착하듯이 하는 태도일까?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장식이 호상학과를 변창시킨 과정과 그 학문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상학과란 남송 理學의 한 학파이다. 북송의 주돈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정호·정이·이정을 거쳐 남송대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된 이학은 크게 두 갈래 계통으로 나뉜다. 하나는 양사·이통·주희로 이어지는 閩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좌·호안국·호굉 부자를 거쳐 장식으로 연결되는 湖湘學이다. 호상학과와 대표인물인 호안국의 호가 호문정이므로 정조의 비유는 장식이 호상학과와 학맥을 이은 것을 지칭한다. 호상학과와

29)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_大學」, 「到記儒生秋試及抄啓文臣親試文臣製述」, “惟予自在春邸, 潛心是篇, 晝漏晨鐘, 窮深研幾者, 蓋亦有年矣. 常謂欲尊經者, 當先知尊朱. 而尊朱之要, 又在於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不但如張宣公之留著胡文定, 然後儻庶幾乎真箇尊朱.”

발전과정에 있어서 호안국이 『춘추전』을 지어 호상학파의 사상적 특색과 학문적 풍격을 다졌다면, 호굉은 『지언』을 통해 가학을 잇고, 더 나아가 性과 天道라는 이학 주제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호상학파가 번창하게 된 것은 장식에 의해서이다.

장식(張栻, 1133-1180)은 그의 아버지 장준으로부터 유가 사상을 교육받는다. 그러다 27세 때 호굉을 만나게 되었다. 호굉은 장식의 이학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장식 또한 그 가르침을 귀히 여긴다. 장식은 호굉의 『지언』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 말은 간략하며 그 뜻은 정세하다. 참으로 도학의 요체요, 다스림의 거울이다.”³⁰⁾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굉은 장식을 제자로 받아들인 그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장식은 1165년에 유공(劉珙, 1122~1178)의 초빙으로 악록서원에서 강의하며 운영을 맡게 된다. 배우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수천 명에 달하여 장식은 스승 호굉의 학문을 이어받은 호상학파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장식은 서원을 단순한 과거공부처가 아니라, 도를 전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인재 배출의 장소로 규정했다. 그리고 교육의 宗旨, 교육방법, 조직기능을 일신하여, 관학과도 구별되고 복송의 서원과도 다른 새로운 교육기구를 확립하게 되었다.³¹⁾ 장식이 중흥시킨 호상학파는 이학을 추승하고 경제치용을 강조하며 공행실천을 주장한다는 특징을 가지며,³²⁾ 이러한 호상학은 왕부지, 하장령, 증국번 등에 영향을 미쳤다. 호굉과 장식의 사상적 차이를 仁과 性의 언급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張栻, 『南軒集』卷40, 「胡子知言序」. “其言約,其義精. 誠道學之樞要制, 治之蓍龜也.”

31) 주한민 저, 박영순 역, 『호상학파와 악록서원』, 학교방, 2011, 131면.

32) 주한민 저, 박영순 역, 『호상학파와 악록서원』, 학교방, 2011, 377면.

① ‘仁’의 해석

장식은 공맹 유학과 이정 도학을 계승하며 이학의 도통을 잇는 역할을 해나가려 하였다. 따라서 위로는 공맹을, 아래로는 이정-호굉 사상을 정수로 삼아 그만의 사상체계를 정리해갔다.³³⁾

“인과 관련된 설의 전일의 뜻은 대개 그 본원을 미루는 것이다. 사람과 천지만물은 일체이다. 이 때문에 사랑은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 사람의 몸에 조금도 관통하지 않음이 없으며 조금도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³⁴⁾

장식에 있어서 인의 본질적인 함의는 ‘사람과 천지만물은 하나의 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人與天地萬物一體)’는 데에 있다.³⁵⁾ 이는 정호의 인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정호는 배우는 자는 우선 인을 인식해야 하며, 인은 만물과 혼연히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이라 말하였다.³⁶⁾ 인의 개념에 있어 장식은 정호의 사상에 호굉의 인 사상을 더하여 수용해 간다.

스승인 호굉은 장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인의 도량이 크면 반드시 대체를 볼 수 있고 그런 연후에야 자신의

33) 이연정, 「장식 ‘仁’에 대한 小考」, 『한국 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4) 張栻, 『南軒集』卷20, 「答朱元晦秘書」, “仁之說前日之意, 蓋以爲推原其本, 人與天地萬物一體也. 是以其愛無所不至, 猶人之身, 無尺寸之膚, 而不貫通, 則無尺寸之膚, 不愛也.”

35) 張栻, 『南軒集』卷20, 「答朱元晦秘書」, “仁之說前日之意, 蓋以爲推原其本, 人與天地萬物一體也.”

36) 程顥, 程頤, 『二程遺書』卷2, “學者須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義禮知信皆仁也.”

편중됨을 살펴서 바름을 익숙하게 할 수 있다.³⁷⁾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이 되는 방법이다. 하늘의 이치가 다 밝혀질 수 있는 뒤에야 극기로 그것을 끝맺는다.³⁸⁾

사람이 그 마음을 다하면, 인을 더불어 말할 수 있고 마음이 그 이치를 궁구히 하면, 성을 더불어 말할 수 있고, 본성이 그 진실됨을 보존하면, 천명을 더불어 말할 수 있다. 경하면 남들이 그를 친애하고, 인하면 백성이 그를 사랑하며, 참되면 귀신이 그를 즐거워한다.³⁹⁾

호굉은 장식에게 仁을 확충시켜 대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강조하였다. 호굉에 있어 인이란 천지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인을 확충시켜 나가면 하늘과 일체가 된다고 말한다.⁴¹⁾ 따라서 천명을 세우는 것은 오직 인자만이 할 수 있다.⁴²⁾ 그에게 인이란 허황된 공언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인은 현실에 작용해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장식은 이러한 호굉의 실천적 仁 개념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호굉이 말하지 않은 사덕의 개념을 더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인설을 구축한다. 장식은 인간의 본성에 인의예지 사덕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선들은 이 사덕과 관계된다고 보았다.⁴³⁾

37) 胡宏, 『五峰集』卷2, 「與將敬夫」, “仁之道大, 須見大体, 然后可以察己之偏, 而習于正.”

38) 胡宏, 『五峰集』, 卷2, 「與將敬夫」, “仁也者, 人之所以爲天也. 須明得天理盡然后, 克己以終之.”

39) 胡宏, 『五峰集』卷4, 「知言」, “人盡其心, 則可與言仁矣. 心窮其理, 則可與言性矣. 性存其誠, 則可與言命矣. 敬則人親之, 仁則民愛之, 誠則鬼神享之.”

40) 胡宏, 『五峰集』卷4, 「知言」, “仁者, 天地之心也. 心不盡用, 君子而不仁者, 有矣.”

41) 이연장, 「장식 '인(仁)'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 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42) 胡宏, 『五峰集』, 「知言」. “誠, 天命, 中, 天性, 仁, 天心, 理性以立命, 唯仁者能之.”

43) 張栻, 『南軒集』卷18, 「仁說」. “性之中, 只有是四者, 万善, 皆管乎是焉.”

사람의 본성은 인의예지 사덕을 구비하고 있다. 그 사랑의 이치는 인이고, 떳떳함의 이치는 의이며, 사양함의 이치는 예이고 앓의 이치는 지이다. 이 네 가지는 비록 형체를 볼 수 없으나, 그 이치가 실로 여기에서 근본하니 여기에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⁴⁴⁾

그러니 이른바 사랑의 이치[仁]라고 하는 것은 곧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며, 그것은 생이 말미암는 바이다. 그러므로 인이 사덕의 으뜸이 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를 겸하여 포섭한다고 할 수 있다. 오직 성속에 이 네 가지가 있으므로, 정으로 발현하면 측은 수오 시비 사양의 단서가 된다. 그러니 이른바 측은이 또한 일찍이 관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성과 정이 체와 용이 되고, 심의 도가 성정을 주재하는 까닭이다.⁴⁵⁾

장식은 사람의 본성에 인의예지 사덕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장식의 논리에서 이 사덕은 각각 사랑, 떳떳함, 사양함, 앓 이 네 가지 이치가 된다. 또한 사덕은性に 소속되나,情으로 발현되면 측은, 수오, 시비, 사양의 단서가 된다.

靜에 仁·義·禮·智의 體가 갖춰지고, 動에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단서가 두루 미치니, 그 名義의 위치는 본래 서로 순서를 바꿈을 용납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로지 仁만이 그것을 미루어 정당함을 얻을 수 있기에 義가 되는 것이고, 仁만이 공경하고 사양하여 절도가 있을 수 있기에 禮가 있게 되는 것이며, 仁만이 知覺하여 여덟지 않을 수 있기에 智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仁이 다른 것을 겸하고 관통할

44) 張栻, 『南軒集』卷18, 「仁說」. “人之性, 仁義禮智四德具焉. 其愛之理, 則仁也, 宜之理, 則義也, 讓之理, 則禮也, 知之理, 則智也. 是四者, 雖未形見, 而其理固根於此, 則體實具於此矣.”

45) 張栻, 『南軒集』卷18, 「仁說」. “而所謂愛之理者, 是乃天地生物之心, 而其所由生者也. 故仁爲四德之長, 而又可以兼包焉. 惟性之中, 有是四者, 故其發見於情, 則爲惻隱羞惡是非辭讓之端. 而所謂惻隱者, 亦未嘗不貫通焉, 此性情之, 所以爲體用, 而心之道, 則主乎性情者也.”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⁶⁾

장식은 仁이야말로 사덕 중 으뜸이라고 강조한다. 장식에게 인이란 사람의 마음이다.⁴⁷⁾ 따라서 배우는 자라면 언제나 인을 구하는 자세를 중시해야 한다. 또한 인을 행하는 것을 ‘극기의 도’로 삼아야 한다.⁴⁸⁾ 이렇듯 장식은 호굉이 강조한 바를 계승하여 인을 그저 추상적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행을 통해서 천지와 합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② 호굉의 성본론과 장식의 성선론

장식의 스승인 호굉은 性を 우주의 근본이자 만물의 존재 근거로 삼는다. 호굉은 성은 선악을 규명할 수 없는 中의 상태이며, 따라서 선악의 결정은 후천적인 행동양식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호굉에 있어서 성은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자, 선악의 개념을 초월한 영역이다. 호굉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은 천하의 대본이다.⁴⁹⁾

성이란 천지가 세워진 까닭이다.⁵⁰⁾

천리와 인육은 체는 같고 용이 다르며, 체는 같고 정이 다르다.⁵¹⁾

46) 張栻, 『南軒集』 卷18. 「仁說」, “夫靜而仁義禮智之體具, 動而惻隱羞惡辭讓是非之端, 達其名義位置, 固不容相奪倫, 然而惟仁者, 爲能推之, 而得其宜是義之所存者也. 惟仁者爲能恭讓, 而有節是禮之所存者也. 惟仁者, 爲能知覺, 而不昧, 是智之所存者也. 此可見其兼能而貫通者矣. 是以孟子於仁統言之.”

47) 張栻, 『南軒集』 卷18. 「仁說」, “曰, 仁人心也, 亦猶在易乾坤四德, 而統言乾元坤元也.”

48) 張栻, 『南軒集』 卷18. 「仁說」, “然則, 學者, 其可不以求仁爲要, 而爲仁, 其可不以克己爲道乎!”

49) 胡宏, 『五峰集』, 卷4, 「知言」, “性, 天下之大本也.”

50) 胡宏, 『五峰集』, 卷4, 「知言」, “性也者, 天地之所以立也.”

호굉은 성을 선한 것으로 말하는 일반적 유가 논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천리와 인욕은 동일한 체를 가지나 그 용과 정에 의해 구분될 뿐이라 보았다. 이는 악을 상대하는 윤리 도덕적 의미에서의 성선을 부정하는 것이다.⁵²⁾ 그는 성의 광범함을 단순히 윤리적 호불호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호굉에 있어 성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본체의 존재이며, 천지의 정묘함을 내포하고 있어 말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성에 윤리적 개념을 덧입히는 것을 꺼렸다.⁵³⁾

그러나 장식은 이와는 달리 성은 선하며, 성선의 주요 내용으로 인의 예지를 들어 선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인의예지 사덕으로 보아 분명히 한다.⁵⁴⁾ 장식은 인의예지는 성에 구비되어 있고 그 단서가 되는 것을 측은, 수처, 사양, 시비심이라 보았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고 확충시킨 것으로 장식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성선의 논리는 대개 여기에서 근본하니, 문의를 상고해 보면 실로 문인의 기록에 맹자가 성선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요와 순을 언급하셨다.⁵⁵⁾

인간은 천지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나, 인의예지는 모두 성에 구비되어 있고, 그 이른바 인이라는 것은 곧 사랑의 이치가 존재하는 바이다.⁵⁶⁾

51) 胡宏, 『五峰集』 卷4, 「知言」, “天理人欲, 同體異用 同體異情.”

52) 연재홍, 「張栻의 心論 研究: 호상학과 주자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 67집, 한국중국학회 2013.

53) 그러나 이는 성무선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호굉이 말하는 성은 無善이 아니라 악과 대응되지 않는(惡對之) 개념을 말한다.

54) 張燕妮, 「張栻仁學思想」,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년, p.24

55) 張栻, 『發已孟子說』 卷3. “性善之論, 蓋本於此, 以文義攷之, 實門人記錄, 以爲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也.”

56) 張栻, 『發已孟子說』 卷2. “人受天地之中以生, 仁義禮知皆具於其性, 而其所謂仁者, 乃愛之理之所存也.”

인간의 양심이 구비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이다.⁵⁷⁾

만약 이 사단이 없다면 또한 인간의 도가 아니다.⁵⁸⁾

사단은 만 가지 선에 관계하고, 인은 사단을 꿰고 있으며, 극기는 또한 인의 요지가 된다.⁵⁹⁾

이른바 선이란 대개 이 인의예지가 존재하는 바이다.⁶⁰⁾

사람에게 불선함이 있는 것은 모두 혈기의 하는 바이지 성 때문이 아니다.⁶¹⁾

장식은 맹자의 양심과 사단에 착안하여 性善이라는 명칭이 인간에게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 본래의 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장식의 성선 개념은 호굉이 제시하는 성의 개념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이 외에도 장식은 太極卽性的 본체론, 純粹至善의 인성론, 知行互發의 인식론이라는 이학사상을 제시하였다.⁶²⁾ 그러나 장식의 논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의 제시가 아니다. 앞서 맹자의 예를 통해 호굉의 논리를 수정한 것처럼, 장식은 호굉과 다른 논지를 전개할 때에는 반드시 성리학의 개념 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心論에 있어서도 장식은 호굉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장식은 호굉의 논리에서 心과 性を 體와 用으로 구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

57) 張栻, 『發已孟子說』 卷2. “人之良心具是四者.”

58) 張栻, 『發已孟子說』 卷2. “若無是四端, 則亦非人之道矣.”

59) 張栻, 『發已孟子說』 卷2. “四端管乎萬善, 而仁則貫乎四端, 而克己者, 又所以爲仁之要也.”

60) 張栻, 『發已孟子說』 卷3. “所謂善者, 蓋以其仁義禮知之所存.”

61) 張栻, 『發已孟子說』 卷3. “人之有不善, 皆其血氣之所爲, 非性故也.”

62) 주한민 저, 박영순 역, 『호상학과 악록서원』, 학고방, 2011. 233-260면.

았다. 장식은 오히려 程伊川이 말한 “性이 드러남[顯現]이 있음으로부터 말하자면 心이고, 性이 움직임이 있음으로부터 말하자면 情이다”⁶³⁾라고 말한 것의 의미가 더욱 정밀하다고 주장하였다.⁶⁴⁾ 이것은 장식이 정이 천으로부터 입론의 근거를 모색하여 호상학의 근간인 性體心用의 체계를 옹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⁶⁵⁾

정조는 장식이 호상학과를 계승한 것을 ‘유의이무의 무의이유의’의 정신이라 하여 주자를 존송하는 요령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장식의 호상학 계승과 학파 및 학설의 수용 및 발전, 그리고 변용 양상을 살펴, 정조가 추구한 주자학 존송의 방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조가 ‘장식이 호안국에게 유착하듯’ 하라고 한 말의 진의는 그저 무비판적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조가 말하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정신은 첫째, 스승인 호굉의 학설을 철저히 이해하고, 둘째, 학파를 중흥시킬 정도로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며 동시에 후학을 양성한 자세, 셋째, 스승의 설과 자신의 설의 융합, 새로운 설의 창안 등을 통해 새로운 고민과 시도를 해 보는 자세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다만 스승의 설을 수정할 때에 장식은 반드시 그 근거를 공맹 혹은 程頤와 같은 권위 있는 성현의 논리를 끌어쓰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⁶⁶⁾

63) 程頤, 程頤, 『二程遺書』卷25, “稱性之善謂之道, 道與性一也. 以性之善如此, 故謂之性善. 性之本謂之命, 性之自然者謂之天, 自性之有形者謂之心, 自性之有動者謂之情, 凡此數者皆一也.”

64) 朱熹, 『晦庵集』권73, “栻曰, 心性分體用, 誠爲有病. 此若改作‘性不能不動動則情矣’一語, 亦未安. 不若伊川云‘自性之有形者, 謂之心, 自性之有動者謂之情’語意精密也.”

65) 연재흠, 「張栻의 心論 研究: 호상학과 주자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67집, 한국중국학회, 2013.

66) 이는 장식만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설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논지 전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속대학혹문』에 나타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정신

한편 정조가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한 또 다른 기록은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이하 「속대학혹문서」)에서도 보인다. 『속대학혹문』이란 조선 중기의 문신 이언적이 『大學章句補遺』를 지으며 주자의 『대학혹문』의 예에 따라 『대학장구』와 서차나 해석을 다르게 한 이유를 문답의 형식으로 풀이한 책이다. 즉, 주희가 『대학장구』를 개정하고 그에 대해 『대학혹문』을 통해 『대학장구』의 개정 이유를 부연한 것처럼, 이언적은 자신의 『대학장구보유』에 『혹문』을 짓고 이를 『속대학혹문』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남인은 갑술환국(1694년, 숙종 20) 이후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어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다. 그러다 18세기 말, 이언적의 학문이 정조에 의해 주목받게 되며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언적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정조는 1781년(정조 5)과 1792년(정조 16)에 옥산서원으로 중앙관료를 보내 노론의 대표 서원인 송시열을 주향하는 화양서원의 사례에 준하여 이언적을 치제하도록 명했다. 1794년(정조 18)에는 옥산서원에서 빌려온 이언적의 『續大學或問』을 읽고 돌려보내면서, 「회재선생 ‘속대학혹문’의 서문에 제하여〔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라는 글을 직접 지어 옥산서원에 보내 이를 소장하게 하였다.⁶⁷⁾ 여기에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④사람들이 항상 말할 적이면 반드시 ‘정자와 주자가 출현하고서야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밝혀졌다’고 하며, 후세의 학자들은 단지 그

67) 『正祖實錄』卷39, 正祖 18年 3月 22日 己酉 1794年 清 乾隆 59年. ○先是, 閣臣李晚秀奉使嶺南, 取文純公李滉手簡, 文元公李彥迪『大學續或問』以進. 至是, 上題其卷首, 命藏于陶山, 玉山兩書院.

들은 바를 높일 따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심하기도 하구나. 그 느슨하게 방치하는 것을 즐기고 가까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함이어. 송나라의 정자와 주자가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을 천명하고 발휘시켰는데, 그 본령을 공정히 논하여 보면 바로 『대학』의 고본을 다시 정하는 데 달려 있었던 것이다.⁶⁸⁾

㉔정자와 주자 이후에 채청같은 여러 선비들이 가끔 정자와 주자의 훈고에 의문을 제기하며, 간편(簡編)의 차례를 정한 것에 대해 각기 견해를 달리하는 자도 6, 7家나 되는데, 선정 회재의 『대학장구보유』, 『속대학혹문』 역시 그중의 하나이다. 대저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반드시 분발하기를 기다려서 식견이 열리도록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대개 그 입으로만 외고 귀로만 들어서 실제 마음에는 얻는 것이 없음을 싫어해서이다. 의심이 없는 데서도 의문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의문이 없어지게 된다. 묻고 배우는 차례가 그런 것이다. 비록 정자나 주자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해 노력한 큰 유학자로서도 세 분이 모두 처음에는 정말로 같지 않았는데, 더구나 그보다 아래 수준의 사람이겠는가? 그런 연후에야 정주의 제사를 지내고 정주의 계보를 계승한 자가 반드시 균등하게 주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겠으니, 회재가 『대학』에 대해서 바야흐로 주자를 잘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㉕에서 정조는 후세의 학자들이 정자와 주자를 찬양하면서도 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 태도를 개탄하였다. 그리고 정자와 주

68) 『弘齋全書』 卷55, 「雜著二」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人有恒言, 必曰程朱出而經學明, 後之學者, 但尊其所聞而已, 而不知所以明之之功用, 甚矣. 其樂弛置而厭近思也. 有宋程朱氏, 闡揮經學, 夷攷其本領, 卽在於大學古本之更定.”

69) 『弘齋全書』 卷55, 「雜著二」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程朱之後, 如蔡清諸儒, 往往起疑於程朱之訓, 所次簡編, 各異其見者, 復六七家, 而先正晦齋之『大學補遺』『續或問』, 亦其一也. 夫聖人教人, 必待憤悱而啓發, 何者? 蓋惡其口耳之無得於實心, 則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問學之序然也. 雖以程朱之同德大儒, 三本皆未始苟同, 況其下者乎? 然後知瓚享譜承者, 未必均有朱子之識解, 而先正之於『大學』, 方可謂善學朱子也歟.”

자가 경학을 창도하고, 『고본대학』을 개정한 점이 바로 정주의 뛰어난 점임을 밝힌다. 즉 정조는 조선의 대다수 학자가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선을 보내지만, 그것이 치밀한 논리적 사색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그저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한편 ㉔에서 정조는 회재가 『대학장구보유』를 지은 데 대하여 주자를 잘 배웠다고 극찬한다. 그런데 『대학장구보유』는 주자의 경1장, 전10장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송장을 경1장 말미로 이동시키는 등 다양한 개정의 시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정조는 주자의 설보다 회재의 설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정조는 ‘이정 형제와 주자도 처음에는 세 분이 같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아랫사람인 후인들의 설이야 당연히 주자의 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주자 후에 나온 설은 주자의 설보다 아래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정조가 회재의 태도를 칭찬한 것은 그의 논리적 치밀함이 주자를 뛰어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 보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그 의문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자세에 대한 칭찬이라 할 수 있다.

주자 존숭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던 정조의 입장에서 주자의 설 외의 다른 설들은 주자보다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것 또한 주자의 정신이 아니다. 주자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고 따져, 왜 주자가 그러한 논지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정조는 이러한 과정에서 회재가 그러했던 것처럼,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자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

러나 정조는 주자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회재에 대하여 칭찬하면서도 그것이 곧 주자를 뛰어넘은 학설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정자나 주자처럼 동일한 목적을 위해 노력한 큰 유학자로서도 세 본이 모두 처음에는 정말로 같지 않았는데, 더구나 그보다 아래 수준의 사람이겠는가? 그런 연후에야 정주의 제사를 지내고 정주의 계보를 계승한 자가 반드시 균등하게 주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겠다'고 말한 것이다.

결국 정조는 이언적의 설이 주자와 동일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아래 수준의 사람'의 한계라 보았다. 하지만 정조는 이러한 회재의 사고가 주자와 같지 않다는 점에 천착하여 '옳다' '그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집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자설은 무조건 옳다는 無疑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거듭 읽어 그 사이에서 기존 논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有疑의 상태로 나아간 점을 높이 사 이언적의 태도를 극찬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용인된다는 의미일까? 이어지는 「속대학혹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내가 일찍이 구이지학이 번거롭게 일어나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라지고,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라지자 부정한 도가 熾盛해지는 것을 개탄스럽게 여겨, 공자와 맹자의 도를 배우는 선비들을 가르쳐 현명한 이를 추천하게 하고, 짐차로 몰들어 가는 무리들을 성취시켜 격려하였다. 이에 선정이 편찬한 『大學鈔編』⁷⁰⁾의 심획을 가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구해 보니, 선정이 당시에 자세히 주의한 마음과 정밀하게 이해한 공부를 아직도 책 가운데에서 상상해 볼 수 있으니,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배우는 자들이 마음 쓰기를 모두 선정이 진실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 한 것과 같이한다면, 아무리 더욱 이치에 가까운 허무 적멸의 이단이라 하더

70) 문맥상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을 말한다.

라도 변론을 하여 물리쳐서 환하게 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더구나 서양 사학의 실상은 사람을 어리석게 현혹시키기에도 부족한데 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영남의 여러 유생들에게 부탁하노니, 선정의 심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법을 관찰하는 방법이 돌아보건대 투철하게 탐구하고 정미한 경지에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힘쓰는 데 달려 있지 않겠는가. 마침 명을 받들고 떠나는 近侍가 있기에 촛불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책에다 써서 돌려주면서 제향을 받드는 서원에 간직하도록 하였다.⁷¹⁾

©에서 정조는 이언적의 글이 허무적멸의 이단을 물리치고 서양의 사학에 현혹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정조는 주자학을 정밀하고 진실하게 이해하고자 힘쓴다면 불교나 서학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정조는 주자학의 논리와 개념 안에서 전개되는 의문 제기와 논의는 얼마든지 용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주자학을 벗어난 개념과 사상까지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주자학 내에서 허용되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자세일까? 회재의 『대학장구보유』는 확실히 상당 부분 주자의 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때 『속대학혹문』에서는 『대학장구보유』의 개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조가 용인하는 주자학적 사과의 경계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속대학혹문』의 내용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회재는 『대학장구』의 편차와 순서를 바꾸어 본래의 경1장과 전10장

71) 『弘齋全書』卷55, 「雜著二」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予嘗慨然於口耳煩而經學熄, 經學熄而邪道熾, 教鄒魯之士以賓興之, 就漸染之輩以激勵之, 于斯時也. 乃取先正大學鈔編之心畫, 得以潛心焉. 先正當日細心密理之工夫, 尙亦有以想見於卷中, 爲學固不當若是耶. 今之學者用心, 皆如先正之眞積力久, 雖虛寂之彌近理者, 何難乎辭而闕之廓如. 況西洋邪學之實, 不足愚人, 又何有焉. 寄語嶠南諸生, 欲學先正之心法, 伊其觀法之方, 顧不在於鞭辟近裏之工乎哉. 會有近侍銜命之行, 呼燭書其卷以還之, 俾藏俎豆之院.”

을 경1장과 전9장으로 줄여 『대학장구보유』를 만들었다. 이언적은 이 책을 통해 주희가 편집한 『대학장구』의 구조를 재편한다. 주희는 『대학』을 경 1장과 전 10장의 구조로 편집하고, 그중 제5장인 ‘격물치지장’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소위 ‘보망장’을 만들어 넣었다. 이언적은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주희가 제4장으로 분류했던 청송장을 경 1장의 끝에 붙이고, 경 1장에 있던 ‘물유본말장’과 ‘지지이후장’을 내려서 전 4장에 넣었다. 그리고 ‘此謂知本’과 ‘此謂知之至也’를 합쳐서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전 4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는 주희의 장구와 같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주자의 『대학장구』 체제

經傳	要旨
經1章	三綱領八條目
傳1章	釋明明德
傳2章	釋新民
傳3章	釋止於至善
傳4章	釋本末
傳5章	釋格物致知之義今亡矣
傳6章	釋誠意
傳7章	釋正心修身
傳8章	釋修身齊家
傳9章	釋齊家治國
傳10章	釋治國平天下

표2. 회재의 『대학』 체제

경전	구성	요지
經1章	經1章 1절, 4절~7절, 傳4章	三綱領八條目
傳1章	傳1章	釋明明德
傳2章	傳2章	釋新民
傳3章	傳3章	釋止於至善
傳4章	經1章 3절, 2절, 傳5章 1절~2절	釋格物致知
傳5章	傳6章	釋誠意
傳6章	傳7章	釋正心修身

傳7章	傳8章	釋修身齊家
傳8章	傳9章	釋齊家治國
傳9章	傳10章	釋治國平天下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 4장과 전 5장이 합쳐져서 전 4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 1장과 전 9장의 구조가 되어 주희의 장구보다 1장이 줄어들었다. 이언적은 자신이 지은 이 책의 서문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나타내어 주희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여기에서 취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책 뒤에 『속대학훈문』을 신고, 『대학장구보유』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회재는 『속대학훈문』에서 자신이 『대학장구』의 순서를 바꾼 이유와 편장을 줄인 이유를 문답의 형식을 통해 여섯 개 조항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혹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대학』 한편은 정자께서 비로소 존신하여 그것을 표장한 것이고, 또 이를 위해 간편의 순서를 정하여 그 귀취를 발휘하신 것이다. 주자가 장구를 저술하게 되어서는 비록 정자의 뜻에 근본을 두었으나, 착간을 다시 정한 데에 이르러서는 정자의 견해와 다른 점이 있으니 어찌서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천하의 이치가 무궁하니, 비록 성인이라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 그러므로 성인이 아직 발명하지 못한 바를 후세의 성인이 발명함이 있고, 전현이 아직 말하지 못한 바를 후세의 성인이 말함이 있다. 정자와 주자의 학문은 실로 알고 깊음과 높고 낮음을 말할 수 없으나, 보이신 바가 상세하고 간략하거나 다르고 같음이 없을 수 없다. 정자가 대학에 있어서 표장하고 발휘하였어도 끝내지 못한 점이 있어, 주자가 다시 참고하여 별도로 차서를 지어서 그 뜻을 다하셨으니, 모두 도를 밝히고 가르침을 세운 바이다. 두 분의 견해가 비록 간혹 같지 않음이 있으나,

하나의 법도가 됨에 해가 없다.”⁷²⁾

② 혹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청송 한 절이 정현의 예기 대학편에 서는 착오로 ‘지어신’ 아래에 있었는데, 정자가 올려서 경문의 아래에 두었고, 주자가 또 이것을 전문 3장의 뒤에 두어서, 별도로 한 장을 만들어 본말의 뜻을 해석하였다. 그대가 주자의 설을 미진하다고 여겨서 정자의 옛 설을 회복하고자 한 것은 어째서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고인이 글을 지으실 적에, 반드시 옛 성현의 말씀을 취하여 곁어로 삼으셨다. 예컨대 공자의 제자가 『논어』 20장을 서술하면서 요순의 말로써 종결지어서 성인의 학문의 유래가 있음을 밝혔으며, 자사가 『중용』을 지으실 때에도 장구의 첫머리나, 장구의 말에 대부분 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것을 증거로 활용하였다. 끝장에 이르러서는 또 시경과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종결지었으니, 중용 한편의 요지가 모두 부자의 전수하신 바에서 근본함을 밝힌 것이다.”⁷³⁾

③ 혹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격물치지 배우는 자가 최초로 공을 들이는 곳인데 그 글에 전문이 결실되었으므로 주자가 대개 일찍이 본받아서 만들고자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다가 드디어 정자의 뜻을 취하여 그것을 보충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경문 가운데에서 두 절을 취하여 이 장의 결실을 보충하니 그것은 또한 어디에서 근거한 바인가?”

72) 李彥迪, 『續大學或問』. “『或問』, 『大學』一篇, 程子, 始尊信而表章之, 又爲之次其簡編, 發其歸趣, 及朱子著章句, 雖本程子之意, 而至於更定錯簡, 則有異於程子之見, 何也?”, 曰“天下之理, 無窮, 雖聖人, 有不能盡者, 故有前聖之所未發而後聖發之者, 有前賢之所未言而後賢言之者, 程朱之學, 固無淺深高下之可言, 而所見不能無詳略異同, 程子於大學, 表章發揮而有未竟, 朱子更加參考而別爲序次, 以盡其義, 皆所以明道而立教也, 二子之見, 雖間有不同, 而不害其爲一揆也.”

73) 李彥迪, 『續大學或問』. “或問聽訟一節, 鄭本誤在止於信下, 程子進而置之經文之下, 朱子又置之傳三章之後, 別爲一章, 以爲釋本末之義, 子乃以朱子之說, 爲未盡而欲復程子之舊, 何也?”, 曰“古人述作, 必取古昔聖賢之言, 以結之, 如孔門弟子, 述論語二十篇, 終之以堯舜之言, 以明聖學之淵源有自來也, 子思作中庸, 或於章首, 或於章末, 多引夫子之言, 以證之, 至於卒章, 又引詩及夫子之言, 以終之, 所以明一篇之旨, 皆本於夫子之所傳也.”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정자가 격물이라는 것은 도에 나아가는 시작이니, 격물하고자 생각했다면, 실로 이미 도에 가까울 것이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치지의 요체는 마땅히 지선의 소재를 아는 것이니, 마치 아버지는 자애에 머무르고, 자식은 효에 머무르는 류와 같다고 하였다. 주자도 또지지(知止)라고 한 것은 사물이 이르고, 얕이 지극해져서 천하의 일에 모두 그 지선의 소재를 아는 것이 있음을 말하였으니, 정자와 주자도 이 두 절로써 격물과 치지의 뜻을 삼은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다만 그 지지라고 한 것이 지어지선의 아래에 속하였기 때문에 선유들이 그것이 경문이 된다고 생각하여 감히 옮겨 바꾸지 못한 것이다. 생각건대 이 도 절을 삼강령 팔조목의 사이에 두면, 깊고 긴절한 의미가 없고, 그것을 옮겨 격물치지장의 글로 삼으면 그 포함되는 의미가 넓고 경문에도 흠이 없어지고 전의 뜻에도 보충됨이 있어, 반복하여 참완(參玩)하면 말이 만족스럽고 의리가 명백해져 의심할 것이 없어지니, 비록 회암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또한 일부는 여기에서 취함이 있을 것이다.”⁷⁴⁾

이언적은 『속대학혹문』에서 자신의 편차 개정의 이유를 문답 형식으로 변호하였다. 그런데 이 문답은 자신의 논리를 개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저 자신의 생각이 더 논리적이거나, 이치에 합당하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언적은 먼저 ①에서는 정자의 설을 주자가 고친 점을 언급하며, 비록 성인이라도 천하의 이치를 다 알거나 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자의 설을 주자가 고친 것과 같이 비록 성인의 설이라 할지

74) 李彥迪, 『續大學或問』. “或問, 格物致知, 學者最初用功之地, 而其文, 專闕, 朱子, 蓋嘗欲效而爲之, 而竟不能成, 遂取程子之意, 以補之, 今子乃取經文中兩節, 以補此章之闕, 其亦何所據耶?”, 曰“程子, 言格物者, 適道之始, 思欲格物, 則固已近道矣. 又曰致知之要, 當知至善之所在, 如父止於慈, 子止於孝之類, 朱子, 又言知止云者, 物格知至, 而於天下之事, 皆有以知其至善之所在也, 則程朱, 亦以此兩節, 爲格物致知之意, 明矣. 但其知止云者, 屬於止於至善之下, 故, 先儒, 意其爲經文, 而不敢移易也. 惟此兩節, 置於三綱領八條目之間, 無甚緊切意味, 而移之爲格物致知章之文, 其意之所包, 其廣, 無欠於經文, 而有補於傳義, 反覆參玩, 辭足義明, 無可疑者, 雖晦菴復起, 亦或有取於斯矣.”

라도 때로 후인들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이언적 자신 또한 주자의 설을 수정하는 데에 있어 고의로 참람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②에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대학장구보유』에서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 왜 이러한 방식으로 개정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언적은 청송 이하의 1절에 대하여 정현과 주자가 순서를 달리하였던 부분에 대해 자신이 주자의 설이 아니라 정현의 설을 따른 이유로, 옛사람들이 글을 쓰는 습관에 있어서 반드시 옛 성현의 말씀을 취하여 곁어로 삼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옛 사람들이 글을 짓던 방식 및 정자가 편을 정했던 방법에 따라 청송장을 경문 바로 아래로 옮겨 글의 뜻을 더욱 긴요하고 절실하며 의미심장하게 바꾸었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③에서 이언적은 격물치지보망장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는 주자와는 달리 경문에 있던 두 구절을 격물치지장의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여 경문에서 두 절을 취해 전문으로 삼는다. 그리고 정자와 주자도 이 두 절로 격물과 치지의 뜻을 삼았을 것이나, 경문을 감히 옮겨 바꾸지 못한 것뿐이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설을 주자가 본다면 주자 또한 이를 취할 만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장구보유』와 『속대학혹문』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초점은 이언적의 설이 주자의 설과 얼마나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는가를 향해 있었다.⁷⁵⁾ 물론 이는 조선 유학자들이 주자학을 묵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언적의 설을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시각으로 평가하려는 논리가 우세하였다.

그런데 이언적은 여섯 개 조목 모두, 자신이 주자의 논리를 고친 근거를 주자성리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정형제와 공자, 맹자가 이미 언

75) 주석 5) 참조.

급하였던 내용에서 찾고 증거로 활용하였다. 또한 옛사람들의 글 짓는 습관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고, 성인이라도 다 알지 못하거나,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며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정자와 주자도 설이 각기 달랐다는 예를 제시하여 이언적의 시도가 성현들 사이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회재의 『속대학혹문』에 대하여 주자를 잘 배웠다고 극찬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무의이유의 유의의무의’의 의미는 더욱 명료해진다. 이는 바로 기존의 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색과 숙고를 통해 논리를 개진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자신의 새로운 논리라는 것도 결코 주자학을 벗어난 논의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주자는 스스로 사서의 체계를 새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주석을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어류와 서신, 그 외 강의록 등 다양한 저서와 글을 남겼다. 방대한 글을 남겼던 탓에 주자의 논리 체계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때로 변화하기도 하였고,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상반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비춰질 때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에서는 새로운 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자의 설과 다른 내용일지라도 논리적 근거가 주자학의 언어 속에서 발굴된 것이라면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언적은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언적은 『속대학혹문』에서 자신의 『대학장구』 개정이 주자학적 논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맹을 잘 이어서 주자학의 논리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음을 변증하였다. 따라서 정조 또한 주자학의 개념을 근거로 주자의 설을 수정하는 회재의 태도를 ‘주자를 잘 배웠다’고 칭찬할 수 있었다.

3. 결론

지금까지 주자학에 대하여 정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려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정조는 주자를 존송하는 요령이자, 주자를 잘 배운 자세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장식이 호상학을 계승한 것과 이언적이 『속대학혹문』을 지은 점을 제시하였다.

장식은 자신의 스승인 호굉의 설을 계승하고, 제자 양성, 학문의 심화 발전 등을 통해 호상학을 널리 알렸으나, 호굉의 설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호굉이 성의 윤리적 선악 개념을 부정한데 반해 장식은 성선을 주장하여 호굉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장식은 맹자와 정이천 등 선현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언적은 주자의 『대학장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자가 왜 『대학장구』를 개정했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대학장구보유』를 쓰고, 개정 이유로 『속대학혹문』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속대학혹문』에 나타나는 이언적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공맹, 이정과 주자의 논리가 그대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의 본질은 바로 비판적 사고와 회의 정신이다. 정조는 주자학을 정학으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묵수적으로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주자학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학문 경향으로 나아가려 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회의 정신을 가지고 주자설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학자들에게도 주자설에 대한 깊이 있는 의문 제기를 바랐다. 정조는 학자들이 주자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자가 이러한 논리를 개진한 것인지 스스로 묻고 따져 고찰해 보기를 바랐다. 그는 이러한 회의 정신과 비판 의식 속에서 주자학이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물론 주자설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면 때로 주자가 제시한 말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조는 그것이 주자학의 언어 속에서 이론적 견고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주자가 강조한 학문 태도의 본질이다.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를 강조하는 정조의 주자학 학습법은 주자가 『근사록』에서 언급한 致知의 구체적 학문 태도에 근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결론 도달에 있어 주자학을 벗어난 이론을 용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만약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면 그 근거는 반드시 주자학 안에서 설명되어야 했다. 장식은 호광의 설을 부정하는 데 있어 맹자와 이정의 설을 근거로 들었다. 이언적 또한 『속대학혹문』 전반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개정한 『대학』의 체제는 자신의 설이라기 보다는 성현들의 설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조 또한 이러한 ‘무의이유의 유의이무의’ 정신을 심분 활용하여 「책문_대학」이나 『경사강의』를 통해 상당히 예리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언적과는 달리 주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단지 주자설이 보다 정교해지도록 논리적 이해를 보강할 뿐이다. 이는 주자를 온전히 이해하였다는 자신감과 주자설의 완벽성에 대한 확신의 교집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왕이라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검토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文淵閣 四庫全書DB本〕

胡宏, 『五峰集』

程顥, 程頤, 『二程遺書』

朱熹, 『大學章句』

朱熹, 『大學或問』

朱熹, 呂祖謙, 『近思錄』

張栻, 『南軒集』

張栻, 『癸巳孟子說』

『朱子全書』

〔韓國古典綜合DB本〕

正祖, 『弘齋全書』

『正祖實錄』

〈연구논저〉

강지은 지음, 이혜인 옮김(2021), 『새로 쓰는 17세기 조선유학사』, 푸른역사.

이연적 지, 조창열 역(2008), 『大學章句補遺, 속대학혹문』, 한국학술정보.

주희 지음, 최석기 옮김(2014), 『대학』, 한길사.

주한민 지, 박영순 역(2011), 『호상학과와 악록서원』, 학교방.

강문식(2020), 「정조의 朱子學 연구와 『朱書百選』 편찬」, 『한국문화』 제89-62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보승(2019), 「회재 이연적의 『대학장구』 편차 개정과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찬반론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5집, 한국유교학회.

권오영(2020), 「正祖의 朱子學과 정치이념」, 『진단학보』 제135집, 진단학회.

김진성(2011), 「晦齋 『大學章句補遺』의 思想的 特徵」, 『孔子學』 제20집, 한국공자학회.

박경남(2013), 「한국문집과 한학연구: 한중 문화의 교차적 이해(1): 청과 조선의

- 어제집 편찬과 성조, 정조의 『대학』 논의, 『민족문화연구』 제6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백민정(2009), 「정조와 다산의 『대학』에 관한 철학적 입장 비교: 『경사강의_대학』 『증진추록』 및 『희정당대학강의』 『대학공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26집, 퇴계학연구원.
- 백민정(2010), 「경사강의를 통해 본 정조시대 학문적 논쟁의 양상 사서에 관한 정조와 학인들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 서근식(2009), 「晦齋 李彦迪의 『大學』 해석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研究』 제34집, 동양고전학회.
- 소현성(2001), 「張栻哲學思想研究, 北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소현성(2004), 「장식(張栻)의 중화설(中和說), 『동양철학』 제22집.
- 연재흠(2013), 「장식의 心論 研究: 호상학과 주자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67집, 한국중국학회.
- 이동희(2008), 李彦迪의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 이연정(2018), 「남軒(南軒)장식(張栻)의 수양론 연구 -호상학과 주자학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 이연정(2017), 「장식 '인(仁)'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 이지경(1997), 「晦齋 李彦迪의 「大學章句補遺」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16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지경(2002), 「朱子の 『大學章句』 編次 해석에 관한 이언적의 비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2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조창열(2005), 「주자, 회재(朱子, 晦齋)의 『대학』 주석 비교 연구, 『漢文古典研究』 제11집, 한국한문고전학회(구.정신한문학회).
- 한형조(2000), 「정조의 학문관: 주자학의 비판적 복고, 『장서각』 제3-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戴景賢(2018), 「論南宋湖湘學脈之形成與其發展, 『中國文化』 第四十, 八期.
- 蘇炫盛(2016), 「張南軒의 性論, 『蜀學』 第十一輯.
- 鐘雅琮(2014), 「張栻對胡宏思想的傳承及調整, 『孔子研究』.
- 任仁仁(2018), 「張栻生平及其往來書信論析,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楊世文(2016),「張栻的治國理政思想及現實意義 - 以『論語解』爲中心的考察」,『蜀學』第十一輯.
- 王麗梅(2001),「張栻哲學思想研究」,『湘潭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鳳賢(2017),「胡宏、張栻的“性本論”倫理思想」,『浙江學刊』.
- 姜海軍(2016),「胡宏的經學詮釋及其思想探析」,『儒家典籍與思想研究』第八輯,北京大學出版社.
- 張燕妮(2013),「張栻仁學思想」,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鐘雅琮(2014),「張栻對胡宏思想的傳承及調整」,『孔子研究』.

누리집

한국경학자료시스템DB: koco.skku.edu

A Study on the Method of King Jeongjo's Studying Confucianism Bible

Lee, Si-yeon*

King Jeongjo, the 22nd king of Joseon, presented an attitude of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At first, even if there is no doubt, questions arise, and at some point all questions are solved as you continue to solve them with questions.)” as a way to learn Zhu-xi to cope with the new ideological influx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cademic discussions on whether King Jeongjo uncritically respected “Neo-Confucianism” raised some other theories, or at what other points he stood at, are still divided.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King Jeongjo's specific position and academic attitude toward “Neo-Confucianism” by tracking the intentions of the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that King Jeongjo wanted to say. It is twice that King Jeongjo mentioned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within 『Hongjejeonseo』. The first is the part that emphasized through “「ask for countermeasures」” that “Zhang-shu(張栻) should be a as if it were adhered to Hu-anguo(胡安國) as a trick to respect Zhu-xi.” The second is the preface to Hojae's work “『A sequel to ask a question for great literature』,” praising Hojae's achievements for learning Zhu-xi well and doing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According to the consideration, King Jeongjo emphasized the attitude of questioning, but at the end of the question, there was a point where the question was necessarily resolved. Jeongjo's question found in 『ask for countermeasures』 or 『Lectures on scriptures and history』 was not a departure from Neo-Confucianism, but a process of deeper

* East Asian Studies at Sungkyunkwan University / E-mail: tyyuui12@naver.com

understanding of the Zhu-xi's theory. Therefore, Jeongjo's spirit of "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is an academic attitude inherited from Zhu-xi, and even if there is no question at first, if you continue to study, you will be asked questions one after another, and if you continue to ask questions one by one, all questions will be resolved. At this tim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ogic should be supported within the premise of Confucianism, not accepting new opinions outside of Neo-Confucianism. On the other hand, Jeongjo also has a very keen attitude to asking questions, but he does not present a new theory, which may be an intersection of confidence that he fully understood Zhu-xi and the perfection of the Zhu-xi theory, or an inevitable choice considering the status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king.

Key Words

king jeongjo, zhuxi, the great learning, ZhangShi, HuXiangXuePai

논문접수일: 2022. 1. 19, 심사완료일: 2022. 6. 28, 게재확정일: 2022. 6. 30
--